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 왈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줄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줄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꿰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18.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19.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2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윗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충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묻음.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회화화된다.

-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승상이 충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회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움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밝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 당신……,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 치병: 병을 다스림.

* 환후: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뻗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 ② ‘뵈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24.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 ②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 ③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다.
- ⑤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써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 ① ‘킁킁’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②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④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 ② ㉠은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 ③ ㉡은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은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하는 진정한 요인임을 말한다.
- ⑤ ㉠과 ㉡은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 ①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군.
- ③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군.
- ④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군.
- ⑤ ‘자신의 비루함을 뺏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불편스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 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 나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 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 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 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음 어때.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 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곤 했다.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것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허원은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아 있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것으로 그 **실물**을 대신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런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單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 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었다.

㉣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익숙해지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런 즈음이었다.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여태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 오다가 비로소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무슨 우연찮은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관심의 정도도 여간이 아니었다.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흥허물 없이 터놓고 지껄이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었다.

—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28.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 ② ㉡: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9.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 본 결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 ②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 ③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 ④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 ⑤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30.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 ②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 ③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④ ‘허원’은 ‘심상찮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 ⑤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 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 ①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겠군.
- ②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 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붙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헛 잠방이 노닥노닥
곶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없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삼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畬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쏘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송*인들 당할쏘냐

- 작자 미상, 「갑민가」 -

* 돈피: 담비 가죽.

* 갑민: 갑산의 백성.

* 석송: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서주: 서쪽 밭.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 지는군.
-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